산업보건 주요뉴스

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, 국무회의 의결

–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더불어 법 시행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 –

정부는 9월 28일(화) 국무회의에서 '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안)'에 대해 심의 · 의결했다.

시행령은 중대산업재해 관련,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해 인과관계 명확성(급성), 사업주의 예방가능성, 피해의 심각성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,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, 열사병 등 24개의 직업성 질병 목록을 선정했다.

아울러,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의무로 시행령에 위임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· 이행 조치와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.

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· 이행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해 전담 조직, 필요한 예산, 전문인력, 종사자 의견 청취 및 도급 시 기준 ·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,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로는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 및 안전보건교육의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,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했다.
그 밖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, 교육방법 등에 관한 내용과 중대산업재해의 형이 확정된 경우의 공표 내용,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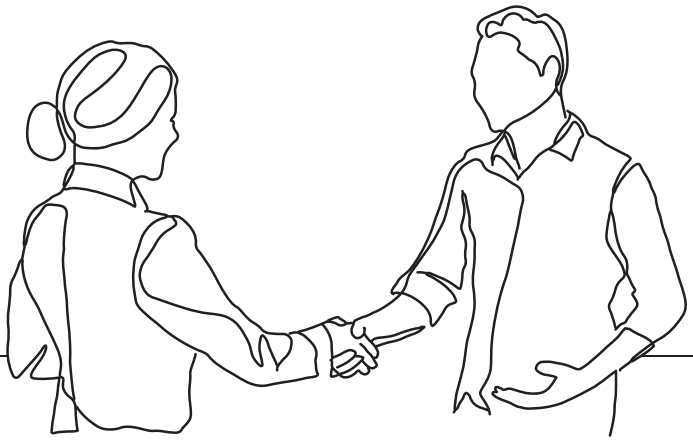
입법예고 후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노 · 사단체, 협 · 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약 300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정안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했다. 특히, 구체적으로 규정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던 '적정한 예산 편성'과 '충실하게 업무 수행'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최대한 구체화하였으며,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및 절차도 정비했다.

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한국어판 국제 화학물질 안전카드(ICSCs)를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

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는 국제노동기구(ILO)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사장 박두용)과 협력하여 국제화학물질안전카드(ICSCs)의 한국어판 번역 · 제작을 완료하고 누리집을 통해 정식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.

국제 화학물질 안전카드(ICSCs)는 1980년대 국제노동기구(ILO)와 세계보건기구(WHO)가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 · 확산하기 위하여 개발한 카드 형태의 자료이다. 현재 총 1,783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카드가 영어, 중국어, 일본어 등 11개 언어로 제작되어 활용되고 있으며, 이번에 12번째 언어로 한국어판이 추가된 것이다.

국제 화학물질 안전카드(ICSCs)에는 물질의 종류별로 2쪽 분량의 카드에 물질 특성 및 위험성, 사고예방 및 응급대처 요령 등 필수적인 안전보건 정보를 간결하게 담고 있다.

국제 화학물질 안전카드(ICSCs) 한국어판 발간을 통해 해외 진출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자 및 해외에 취업 중인 한국인 근로자 등 국내외 한국어 사용자들이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. 이를 통해 사고방지 및 직업병 예방 등 사업장 안전보건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.

한편, 국내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의 작성 · 검토 과정에서 국제 화학물질 안전카드(ICSCs)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. 국제 화학물질 안전카드(ICSCs)의 한국어판은 국제노동기구(ILO)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하거나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. 또한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향후 국제노동기구(ILO)와 협력하여 지속 현행화(업데이트)해 나갈 예정이다.